

■ 주요 뉴스: 미국 소비자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 하락. 생산자물가는 예상 상회

- 미국 무역대표부, WTO의 위반 판정 불구 철강알루미늄 관세 폐지 거부
- 세계은행과 IMF, 세계경제 전망의 추가 하향 위험을 경고
- 영국정부, 런던의 금융허브 지위 유지를 위한 '에딘버러 개혁' 방안 마련

■ 국제금융시장: 다음주 미국 CPI 발표와 FOMC를 앞두고 경계심 증가

주가 하락[-0.7%], 달러화 강세[+0.2%], 금리 상승[+10bp]

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11월 생산자물가 예상 상회 등에 따른 경계감에 하락
유로 Stoxx600지수는 중국의 코로나 방역 완화 기대 등으로 상승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긴축 기조 지속 전망에 상승
유로화는 소폭 하락, 파운드화는 런던 금융허브 유지 계획에 상승(+0.2%)
- 금리: 미국 10년 국채금리는 단기 급락 인식과 소비자심리 개선 등으로 반등
유럽 국채금리도 다음주 ECB와 BOE 회의를 앞두고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,302.5원, +2.1원) 0.2% 상승, 한국 CDS 보합

		12/9일	12/8일	전일대비			12/9일	12/8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3,934.4	3,963.5	-0.73%	국채 금리 10y	미국	3.58%	3.48%	10bp
	유럽	439.13	435.47	0.84%		독일	1.93%	1.82%	11bp
	중국	3,207.0	3,197.4	0.30%		영국	3.18%	3.09%	9bp
	일본	27,901	27,574	1.18%	CDS 5y	한국	54bp	54bp	-
	한국	2,389.0	2,371.1	0.76%		중국	75bp	75bp	-
환율	달러지수	104.94	104.77	0.15%	위험 지표	EMBI+	-	384	-
	유로화	1.0540	1.0556	-0.15%		VIX	22.83	22.29	2.42%
	엔화	136.56	136.67	0.08%	원자재	WTI유	71.02	71.46	-0.62%
	위안화	6.9584	6.9674	0.13%		구리	387.6	388.1	-0.12%
	원화	1,301.3	1,318.0	1.28%		금	1,797.3	1,789.1	0.46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소비자들의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, 작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

- 미국 연준이 주시하고 있는 미시건대학교의 12월 단기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가 예상보다 낮은 4.6%로 작년 9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으며,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56.8에서 59.1로 상승.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는 전월과 같은 3% 기록
- 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7.4%로 5개월 연속 둔화 추세를 지속했지만 서비스 부문 강세 등으로 시장 예상치(7.2%) 상회
- 미시건대는 전반적 맥락에서 소비자들의 고물가 우려가 완화되어 인플레이션 기대 하락이 단순히 휘발유 가격 하락에 의한 것은 아님을 보여주지만,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저하와 신용카드 및 자동차 대출 잔액 증가, 이자비용 상승 등으로 올해의 견조한 소비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, 세계무역기구(WTO)의 위반 판정에도 불구하고 철강·알루미늄 관세 폐지 거부

- WTO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산 철강·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이 기본규칙 위반이라고 판결. 이에 미국 무역대표부는 잘못된 해석과 결정을 강력히 거부한다고 밝히면서 관세 유지 입장을 고수

■ 세계은행과 IMF, 글로벌 경제 전망 추가 하향 경고. 중국 코로나 방역 완화는 환영

- IMF,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글로벌 경제전망의 추가 하향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
- 한편, 중국의 코로나 정책 조정이 중국과 글로벌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, 개도국들의 부채 문제에 대하여 최대 채권국인 중국의 협조를 요청

■ 영국정부, 런던의 글로벌 금융허브 지위 유지를 위한 30개의 개혁 조치 마련

- ‘에딘버러 개혁’으로 불리는 이번 조치에는 영국이 EU 회원국일 때 도입된 규칙 정비 및 폐지, 증권화 및 공매도 규칙 재검토, 소형은행 자본규제 완화,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ESG 관련 규제 정비 등이 포함

■ 중국 리커창 총리, 물가안정으로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조정 여지가 확대

- 현재 중국경제의 핵심 문제는 수요 부족이라고 진단하면서, 2분기 반등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지만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부양을 위한 거시정책 조정 여지는 커졌다고 평가

■ 러시아, G7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 설정 시 원유 생산 감축 경고

-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원유에 대해 가격 상한선을 부과하거나 EU의 금수조치에 동참한 국가들에게 원유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, 서방의 이러한 움직임은 비시장적이고 모두에게 해로운 결정이라고 비난

■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, 내년 프랑스 경제는 소폭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

- 드 갈로 총재는 올해 성장률은 2.6%를 기록하고, 내년은 침체 가능성이 있지만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연간 소폭의 플러스 성장을 낙관

■ 인도 정부, 의회에 금번 회계연도 \$397억의 추가 예산 편성 요청

- 인도 정부는 일찍이 39.45조루피(약 \$4,805억) 규모의 정부지출안을 편성해 의회에 승인 요청한 바 있으나, 러-우 전쟁에 의한 비료 가격 급등 영향을 보조금으로 완화시키기 위해 3.26조 루피(약 \$397억) 등의 추가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

■ 필리핀 중앙은행, '22년 및 '23년 경상수지 전망치 조정

- '22년 필리핀 경상수지 전망치를 \$206억 적자(5.0%, 이하 GDP 대비)에서 \$205억 적자(5.1%), '23년은 \$201억 적자(4.5%)에서 \$199억 적자(4.7%)로 조정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, 러-우 전쟁 장기화, 공급망 교란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

■ 블룸버그 투자자 서베이, 내년 글로벌 증시 10% 상승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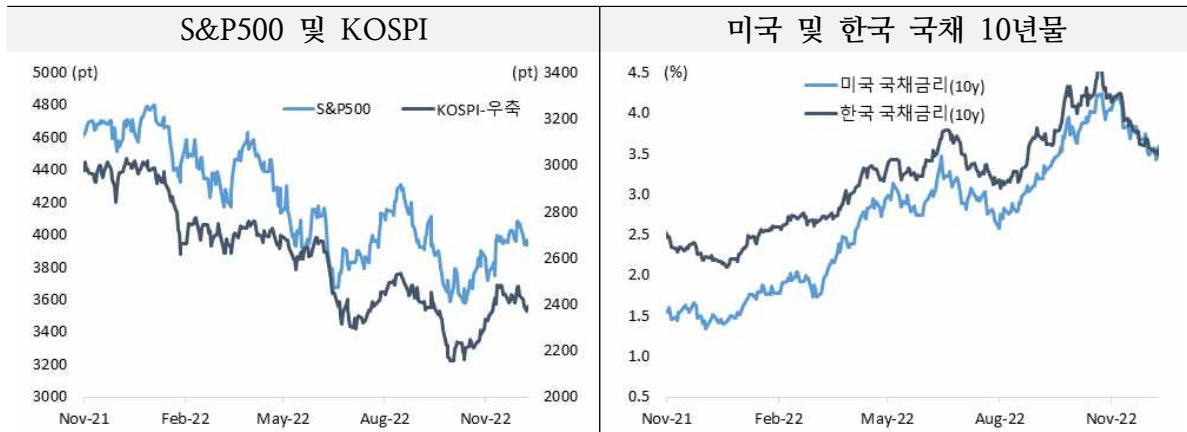
- 블랙록, 골드만삭스 등 134명의 펀드매니저 대상 서베이 결과 71%가 내년 주가 상승을 전망했으며, 연초에 주가가 신저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고 반등은 하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. 위험요인은 고물가 지속과 깊은 경기침체를 지목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2/12 현지시각 기준)

- 영국 3분기 GDP와 10월 제조업생산, 미국 10년물 국채입찰 등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48, E-mail dhkwon@kcif.or.kr